KOREA UNIVERSITY 1905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교육신문

2021년 6월 5일(토) The Korea University Education Monthly 제477호(월간)

이 달의 지면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05 교육과 스승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07 교육과 공동체
08 문화탐방

학 사 일 정

6월

- 6(일) 현충일(공휴일)
- 7(월)~11(금) 연구지도보고서 제출
- 11(금) 2021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 11(금) 2021학년도 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8(화)~21(월)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 21(월)~7.2(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온라인 제출
- 22(화) 여름방학 시작
- 30(수)~7.2(금) 2021학년도 1학기 완제본 논문 접수

7월

- 2(금) 2021학년도 1학기 완제본 논문 접수 마감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 간 박종훈
- 간 사 문장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 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초점

미래교육을 책임질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중앙교육연수원

김원찬
중앙교육연수원장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교육연수원장 김원찬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교육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싹 틔우기 위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공무원 등 교육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메타연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미래지향적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중앙교육연수원의 역할 및 주요 기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직원, 유·초·중·고교 교장 및 교감, 시·도교육청과 대학 종사자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하고, 인적자원개발(HRD)을 위한 연구와 일선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원격교육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 선도자 양성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공무원의 핵심 역량과 리더십 개발, 미래교육 HRD의 성장 등을 목표로 연수과정 개발과 운영, 그리고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인적자원개발(HRD) 분야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중앙교육연수원에서 HRD의 뉴노멀 정립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HRD 분야에서도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교육이 온라인·혼합 교육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학습자·현장 중심의 HRD를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방식의 개발·선택·활용을 통하여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 패러다임과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교육연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교육연수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60만 명에 이르는 교원과 시·도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재 개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인재 개발 체계를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화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온라인 연수 플랫폼(Youtube, Webex, Zoom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패러다임에 대해 고민하고 대화하는 온라인 공개강좌 '중앙교육연수원, 새로ON 미래路' 시리즈를 매월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연수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교육정책의 정착 확산 및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이 강좌를 통해 인구변화, 빅데이터, AI, 탄소제로 사회, 블록체인, MZ세대 등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의 본질을 꿰뚫고 역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 미래기술과 교육의 접목은 당면 과제이자 앞으로도 넘어야 할 도전적 과제입니다. 비대면 교육의 보다 높은 효율성과 만족도를 위해 중앙교육연수원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의 교육도 Youtube, Zoom과 같은 원격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이러한 비대면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뉴노멀 시대 신개념 연수로의 전면적 전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대면 교육 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인, 장시간 교육에 따른 학습자의 집중도 저하를 막기 위해 지식 전달 위주의 기초 내용은 온라인 사전학습을 활용하되, 토의와 팀 프로젝트 또는 질의응답 같은 상호작용 위주의 활동을 중심으로 비대면 교육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최적화된 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Mentimeter나 Padlet과 같은 스마트 소통 앱을 적극 활용하여 학습자의 디지털 문해력을 제고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교수-학습자 및 학습자 상호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 능동적인 교육 참여와 몰입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참신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개의 교육방법 자체보다도 각각의 연수에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유의미한 학습이 변화된 교육환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할지에 대해 우리 원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중앙교육연수원은 설립 초기 국내 교원들에게 국가의 주요 시책을 전파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점차 교육인재와 리더 양성을 도맡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백년지대계를 이끌 교육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전보다 더욱 많은 것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제 상황의 전체 맥락을 관통하는 체제적인 사고와 위기관리 능력, 신인류인 MZ세대와 그들이 선호하는 각종 신기술에 대한 이해, 협업과 감성 리더십 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구성원을 일방적인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통제 위주의 리더십보다는, 상대를 긍정과 성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변혁함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에 더하여 공감, 소통, 격려, 상담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포용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넘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치도록 노력했고, 학생들은 한 명씩 타성과 관행이라는 이름의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생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이 시대의 삶을 느끼고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리더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KOREA UNIVERSITY PRIDE CLUB

지금, 당신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학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열어갈 고려대학교가 원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으로 국제전문가 양성
맞춤형 장학프로그램을 통한 우수인재 후원
초일류 석학들의 창의연구(Creative Research) 지원
미래를 개척할 인프라(교육연구시설, 첨단실험시설 등) 구축

은행명, 계좌번호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에 제공되며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부종료 후에도 보관됩니다. 금융결제원 및 은행은 고객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이체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에 관한 위 사항에 동의하며, 옆과 같이 정기기부를 신청합니다.

정기기부신청서

기부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법적 생년월일 기재
구분	□ 교우 입학연도 　 년 대학(원) 　 과 □ 교우 학생성명 대학(원) 　 과(과정) □ 교직원 □ 고대를 사랑하는 사람
기부금액	□ 1구좌 □ 3구좌 □ 5구좌 □ 10구좌 □ 30구좌 □ 기타(　)구좌 ※1구좌 매월 1만원
자동이체 정보	은행명 　 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기부 권유자	성명 　 연락처

작성하신 신청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 1666 · 3403(문자수신 전용)으로 보내주세요.

교육대학원 방역물품 전달식

지난 5월 11일(화) 오후 5시 운초우선교육관 교육대학원장실에서 교육대학원 방역물품 전달식이 있었다. 전달된 물품은 마스크 겉면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패치로, 부착 시 마스크 속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교육대학원에서 재학생들에게 코로나19 위로용품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에도 다회용 마스크와 KF94 필터를 무상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처럼 본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 속에서도 학우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마스크 패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패치는 1인당 2매씩 제공되며, 교육대학원 행정실(운초우선교육관 405호)에서 배부 중이다. 아울러, 수령대장에 본인의 전공, 학번, 성명을 기재하면 패치 외에도 필터가 포함된 마스크와 소독 티슈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운초우선교육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학생증 태그 불가 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방문 시에는 이에 협조해야 하며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교육경영 AMP 교우회 스승의 날 행사 및 감사패 전달

지난 5월 12일(수) 오전 11시 운초우선교육관 204호에서 제21기 교육경영 AMP 원우 및 교육경영 AMP 교우회가 준비한 스승의 날 행사와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태구 교육대학원장, 박종훈 부원장, 이채연 교육경영 AMP 교우회장을 비롯해 김한우 교육경영 AMP 교우회 명예회장과 양채진 담임 등이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본교 교육대학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스승의 날 행사에 앞서, 김한우 명예회장이 정태구 교육대학원장과 박종훈 부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감사패 전달 이후에는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대한 감사장 전달이 이어졌다.

뒤이어 진행된 스승의 날 행사에서는 이채연 교우회장이 교육경영 AMP 교우회를 대표해 정태구 교육대학원장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하였으며 양채진 담임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이채연 회장은 감사 인사와 함께 "교육경영 AMP 제21기 원우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라며 "지식 공유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21기 교육경영 AMP 원우들이 정태구 교육대학원장, 박종훈 부원장, 양채진 담임에게 꽃다발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1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입학 구술시험

지난 5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운초우선교육관과 우당교양관에서 '2021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입학 구술시험'이 진행되었다.

본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응시자들의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 및 발열 여부 확인을 진행하고, 현관 출입 시 사전에 작성한 문진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응시가 불가능하였다.

교육대학원은 이번 후기 입학 전형을 통하여 △간호교육 △교육방법 △교육정보 △교육행정및고등교육 △국어교육 △기업교육 △도덕윤리교육 △미술교육 △상담심리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유아교육 △체육교육 △컴퓨터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등 총 17개 전공의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가정교육, 교육사철학, 생물교육, 일반사회교육, 일어교육 전공은 전기에만 모집한다.

구술시험 당일, 응시자들은 오전 8시 30분까지 지정된 전공별 대기 장소에 입실하여 순서를 기다렸다. 면접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인솔조교의 안내에 따라 면접장소로 이동하여 시험에 응시하였다. 전공에 따른 세부 평가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향후 연구계획, 지원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구술시험 결과는 서류 평가 점수와 함께 최종 합격자 선발 과정에 반영된다. 구술시험에 불참한 응시생의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최종 합격 여부는 오는 6월 11일(금) 본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 공고될 예정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원고를 모집합니다.

- 교육신문사에서는 교육대학원 · 사범대 재학생 및 교우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 원고 모집 지면은 '교육과 이슈', '교육현장노트'입니다. 글을 보내주신 학우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분 량 : A4용지 1매
· 보 낼 곳 : edunews@korea.ac.kr
· 문의사항 : 교육신문사 02-3290-1690

2021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개인섭외 신청안내

본교 교직팀에서는 2021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받고 있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학교현장실습을 이번 2학기에 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실습을 수행할 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학교현장실습 개인섭외 신청기간은 지난 4월 12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는 7월 2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본교에서는 실습이 이루어지는 협력 중·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1학기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을 시행하고, 2학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소수의 학생이 실습학교를 개인적으로 섭외할 경우에 한하여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요건은 소속 학번에 따라 다르니 유념해야 한다. 10학번 이전의 경우, 본교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2021학년도 2학기에 5학기 이상, 본교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3학기 이상 재학(예정)이어야 한다. 11학번 이후인 경우, 00교과교육론, 00교재연구및지도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교육대학원이나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의 경우, 위의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 완료하고 미이수 과목은 실습하는 학기에 수강하며 실습을 나갈 수 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2021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협조 의뢰 공문'과 '학교현장실습 협력승인서'를 가지고 실습학교를 방문한다. 실습희망학교 담당 선생님께 위의 두 서류를 제출하고, 실습희망학교의 학교장 직인이 찍힌 '학교현장실습 협력승인서'를 본인이 작성한 '학교현장실습 신청서'와 함께 사범대학 교직팀(운초우선교육관 507호)에 제출한다.

학교현장실습비는 사범대학생과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본교에서 지원한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은 정해진 계좌에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학교현장실습 신청자는 해당 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해야 하며, 휴학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실습을 취소하게 되면 반드시 섭외학교에 취소를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사유서'를 교직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강원도 소재 학교의 실습 안내는 별도의 공지사항을 고려대학교 교직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1학년도 연구 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지난 3월부터 고려대학교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서 2021학년도 상반기 연구 윤리 교육(연구진실성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 시작되었다.

본교 교육대학원 원생 중 2021년 8월 논문중심과정 졸업예정자부터는 연구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21학년도 1학기가 졸업예정학기인 원생들은 이번 학기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 교육에서는 연구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을 함양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진실성과 관련한 내용을 다룬다. 본교 연구윤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윤리 교육을 수강한 경우, 블랙보드를 통한 추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수 인정이 가능하다.

한편, 2021학년도에 입학한 교육대학원 원생은 올해 12월 31일(금)까지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본교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본 교육은 2021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생부터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본 교육은 교직팀에서 시행하는 성인지 교육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원생들은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블랙보드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블랙보드 로그인 후 왼쪽의 안내 페이지에서 '[2021년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00분반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연구윤리 교육',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수강 및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 2단계로 실시하는 퀴즈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가 가능하다. 마지막 단계인 '교육 이수 내역 인증'을 완료하면 이수가 인정된다. 이수 확인은 고려대학교 포털(https://portal.korea.ac.kr) 수업 메뉴의 '교육이수현황 조회' 장에서 가능하다.

연구 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s://edugrad.korea.ac.kr) 공지사항 또는 블랙보드 안내 페이지의 '법정의무교육 튜토리얼 영상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2021학년도 1학기 연구사례보고서 제출 안내

이번 학기 졸업을 앞둔 5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가운데 학점중심과정 원생은 6월 7일(월)부터 11일(금) 오후 5시까지 연구사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사례보고서는 연구지도보고서와는 별개이며, 논문을 대체하는 서류이므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제출이 가능하다. △학위청구방식이 학점중심인 5학기 이상 재학생 및 수료생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전공, 교직)에 모두 합격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

한편, 연구사례보고서의 분량은 다섯 쪽 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서명 혹은 날인을 받아 접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난 학기에 연구사례보고서를 제출한 원생은 접수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연구사례보고서 및 접수 신청서 양식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http://edugrad.korea.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제출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운초우선교육관 405호)이며, 수료요건 및 졸업요건을 사전 확인해야 하므로 방문 접수만이 허용된다. 연구사례보고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대학원 행정실(02-3290-1377)로 문의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교육과 이슈

시각장애학생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온라인 교육

신연서
나사렛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객원교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개학과 학사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언택트(Untact)’,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등의 용어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직접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학교 교육 또한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온라인 수업이 시각장애 교육 현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각장애학교 교사 수업 경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의 온라인 수업상 어려움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교사와 학생이 접근 가능한 교육 플랫폼이 없다는 것이었다. 플랫폼이 있다 하여도 시각장애학생의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학습 부진과 정보 접근 능력의 격차로 인해 인터넷 플랫폼이 아닌 유선전화와 그룹 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시각장애학생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교육 플랫폼에 대한 연구나 접근방향에 대한 문제 제시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으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은 컴퓨터 환경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학교의 학생들은 웹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지원의 미비로 양질의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계속 변화할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접근 교육과 플랫폼의 지원이 요구된다. 먼저, 평소 시각장애학생이 학교에서 디지털 환경을 능동적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시각장애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각장애학생들이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직관적인 플랫폼의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고, 교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정보 접근 문제에 관해 고민하며 보조공학기기 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므로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평가·제공·지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이전에 보조공학 교육에 힘쓰지 못한 사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 버린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을 위한 정책 과제로 ‘안정적인’, ‘수준 높은’, ‘차별 없는’의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발전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연구만 보더라도, 디지털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수업은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정보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어질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보조공학기기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현재의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과는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 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 촉각 활용 보조 공학, 청각 활용 보조 공학, 시각 활용 보조 공학의 세 가지로 계열화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보조공학기기 사용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만 학습할 수 있는 구조이다. 교육과정 및 평가 방법을 개별 학교에서 교사들이 지도·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맺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대면 수업과는 달리 다양한 문제점들이 수업을 방해하였다. 학기 초에 형성되는 교사와의 관계와 교과에 대한 태도는 수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준다. 교사와 학생이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고 라포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수업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셋째, 시각장애인들은 촉각과 청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황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 학생 및 다른 장애학생과는 다른 어려움을 경험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이전에는 학생과 교사가 직접 대면해 시각을 제외한 감각들을 활용하여 학업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청각적인 정보만으로 지식을 전달해야 했다.

시각장애학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구성원이 다양하다. 교사의 경우 장애 유무에 따라 일반교사 또는 시각장애교사로 나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 맹학생, 저시력학생, 중도실명인 과령학생, 시각장애 외 다른 장애도 가진 시각중복장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개별적인 능력과 접근의 변수 또한 다양하다.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목도 일반 학교 및 다른 특수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시각장애학생은 고등 정규교육과정으로 안마와 침술이 포함된 이료교육을 받고 있다. 이료교육에는 이론 수업뿐 아니라 서로의 몸을 접촉하는 실기 수업이 포함된다. 이료교육 교과의 온라인 수업에서는 음성을 통해서만 지식을 전달해야 했기에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간 겪은 한계점을 보완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각장애학교의 온라인 수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교육방법 연구가 시급하다. 2018년,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교과의 지도서가 보급되었음에도 보조공학기기 활용과 관련한 수업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이 정규 교과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시각장애학교의 온라인 수업 중 시각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각중복장애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교사 또한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별화 교육계획을 실행해야 하므로 앞으로 계속될 온라인 교육 시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어질 온라인 수업에 대비하여야 한다. 시각장애학교 교사는 다양한 자료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하므로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더불어 테크놀로지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 온라인 교육 현장과 긴밀히 연계되는 테크놀로지 소양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위한 연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단신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교육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교육분야에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평가를 수록한 ‘2020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지난 5월 10일(월)에 발간하였다.

이 백서는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면서도 중단 없는 학습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학교 현장과 가정, 관계 분야의 전문가 모두가 함께 협력하며 대응했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2020년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자료는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 전자문서로 게재하여 언제든지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추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학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영문 요약판을 제작하여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인 G20 교육장관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등의 국제기구, 재외공관, 주한대사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2020년 교육분야 코로나 대응백서의 주요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사운영을 시행하였다. 초·중·고 학생 534만명을 대상으로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고, 교사 자체 제작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활성화하는 등 점차 원격수업 시행 체제를 안정화하였다.

둘째,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하였다. 2020년 5월 이후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하였다. 또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와 학원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보완하였다.

셋째, 돌봄 및 예산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돌봄·교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였다. 유·초등·특수학교 대상으로 19시까지 긴급돌봄과 중식을 지원하고 초등생 대상의 아동 특별돌봄비와 중등생 대상의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최대 연160만 원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1.85%로 인하하는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려 노력하였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부, 장애학생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수업 지원

교육부는 지난 5월 17일(월) 35명의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인 진로 멘토단’을 위촉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 따른 장애학생의 진로체험 제한을 극복하고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수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이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업인이 학생들에게 양방향 원격방식으로 수업하며 직업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진로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진로 탐색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장애인 진로 멘토단’은 장애를 가진 직업인으로 구성되어 현장감과 생생함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진로상담 및 수업을 제공한다. 작년 시범 운영된 ‘교직분야 장애학생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에서 시작된 본 사업은 학생 및 교사의 희망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확대 운영키로 하였다.

작년에는 1개 직종의 지도자 6명이 멘토링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20개 직종의 35명으로 지도자의 수가 늘어났다. 유튜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문화·예술·체육·교직·정보기술(IT)을 아우르는 직업 분야별 다양성을 고려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희망과 최신 직업 동향을 반영하였다.

멘토단은 시각장애 7명, 청각장애 7명, 지체장애 7명, 발달장애 14명의 총 35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부는 전체 멘토단의 40%를 발달장애 당사자로 선정함으로써 진로지도 효과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사업 경비 지원을 비롯하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교육·고용 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실제 직업과 연관성이 높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취업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애학생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은 전국의 특수학교(급) 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5월 17일(월)부터 오는 11월 12일(금)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위학교는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누리집(https://mentoring.career.go.kr)을 통해 학급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재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진로·취업 연계를 위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장애학생의 진로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가현 기자 gahyun_park@korea.ac.kr

학교 안팎 안전 환경 조성 지원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 및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취약요소에 대한 보다 적합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설 안전 인증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증 대상은 유치원, 학교, 학생 수련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이다. 각 기관은 최소 5년 주기(단, 최우수 등급은 10년)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2개로 나뉜다. 심사기준은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이며, 각 기준별 세부항목 심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된다. 다만, 교육시설의 종합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기준별 취득점수가 기준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안전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과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교육시설의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인증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사업계획서 심사와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내외의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 심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자격센터에서 수행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6월 16일(수)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운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내 교육시설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 건설공사, 50m 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의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 사업자가 착공 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감독기관장과 교육시설장이 그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건설 사업자가 안전성 보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 평가는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과 안전성 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교육과 학문

초등학교 예술다면 교육과정기준 총론의 필요성

유지선
고려대학교 대학정책연구원 연구교수

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현시대에도 기계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인간의 직관, 협동,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인재 육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핵심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수적이다. 핵심역량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응집을 위해 사회와 개인에 가치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의미한다. 미래 인재들이 길러야 할 핵심역량에 대해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프로젝트에서는 3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도구나 언어 등을 사용 및 이용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 핵심 역량인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술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과 관련한 능력은 곧, '타인에 감정이입(Empathy)을 원활히 하고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일컫는다. 사람들 간 의사소통의 기본요소는 단어, 움직임, 소리, 리듬, 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기본요소는 창작의 재료가 되어 예술작품으로 재현되고, 관람자들은 예술을 통해 여러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한다. 학생들은 다양한 질료로 예술품을 창작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예술 교육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음악과 미술을 비롯하여 무용, 연극, 영화와 같은 여러 영역을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며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술 교육의 영역이 음악과 미술에 한정된 예술편면(片面)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에서 예술 교육의 영역을 음악과 미술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음악과 미술 교과 자체의 논리를 강조하다 보니 다양한 예술 영역들과의 연계 및 통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셋째, 다양한 예술 영역이 기존 교과에 단원, 주제, 소재 등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교육적 효과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 수업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 넷째,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일부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 영역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나, 모든 초등학생을 위한 보편교육이 아니며 학교장의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

우리나라 예술 교육이 편면적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필자는 국가수준 교육과정기준에서 '예술 교육으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필자는 '초등학교 예술다면(多面) 교육과정기준 총론 개발'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예술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예술다면 교육과정기준 총론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예술 교육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예술다면 교육이란 음악과 미술 이외에도 디자인, 공예, 연극, 무용, 영화,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예술 영역을 초등학교 4~6학년 동안 주기적이고 집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여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 교육을 말한다. 예술다면 교육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지능정보화 사회를 거쳐 발달해 온 다양한 예술 영역을 사회, 학습자, 교과의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가르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또한, 그동안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아티언스(Artience, 예술(Art)과 과학(Science)의 합성어) 또는 종합예술 등을 학교 예술다면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예술다면 교육과정기준 총론 개발은 가교 교육과정기준 개발 절차를 따랐다. 교육과정기준이란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의 기준이 되는 계획된 문서 또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전반적인 계획을 담은 문서를 지칭한다. 또한, 가교 교육과정기준이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주요한 주제나 개념의 교육적 실천 가능성과 교육적 효과를 미리 가늠하여, 총론 혹은 각론 문서에 안착시키기 위해 개발하는 예비적 교육과정 기준을 일컫는다.

가교 교육과정기준 개발 절차에 따른 초등학교 예술다면 교육과정기준 총론 개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국내외 예술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론적 탐색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초등학교 예술다면 교육과정기준 총론 구상안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구상안을 바탕으로 가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1차 FGI(표적집단면접법)와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였다. 2차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초안을 수정안으로 다듬었으며, 수정안은 2차 FGI를 통해 최종안으로 축조·심의되었다. 다듬어진 최종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간편 실용안으로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정된 초등학교 예술다면 교육과정기준 총론 최종안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토대로서 제1장에서는 초등학교 예술다면 교육의 도입 배경 및 취지, 성격, 비전과 가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음악과 미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대의 다양한 예술 영역에 대한 변화와 발전이 학교 교육에 도입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중점 사항으로는 기존의 예술 교육에서 다루지 않았던 예술 영역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각론구성의 기본틀로서 제2장에서는 예술다면 교육의 영역을 대·중·소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대영역은 기초예술·매체예술·종합예술의 3가지이다. 기초예술은 음악·미술·국악·무용·연극의 다섯 가지 중영역, 매체예술은 디자인·영화·사진·만화·애니메이션·실용음악의 여섯 가지 중영역, 종합예술은 종합예술활동의 한 가지 중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중영역마다 4~5개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 47종의 예술다면 교육활동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실행지침으로서 제3장에서는 예술다면 교육의 편성과 운영 및 지원을 다루었다. 먼저 47가지의 예술다면 교육활동을 모듈화된 수업으로 만들어 주기집중, 블록타임제로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교수·학습방법으로는 프로젝트 방식과 협력학습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평가에서는 교사의 관찰평가, 학생들의 학습활동지, 자기평가지 등을 종합한 과정중심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원에서는 학교 내의 부족한 시설과 설비를 보완하고자 예술 영역별 '예술놀이차' 운영안을 구상하였다. '예술놀이차'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 내 여러 학교를 순회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외에도 부족한 학교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예술다면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고학년은 예술적 감수성이 민감하게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예술적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청각예술과 시각예술을 넘어 몸예술, 공간예술, 첨단 매체를 활용한 예술 등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다양한 예술영역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모듈개념을 도입하여 각 예술영역에 대한 일정 학습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기집중, 블록타임제, 예술놀이차 운영,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활용으로 부족한 학교 자원을 보완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술다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 분야에 대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그 경험으로 일생동안 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교육신문 문화평

자기계발, 혹은 자유롭게 종속되기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2009)
서동진 지음, 돌베개

이 책에서 저자는 199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자기계발' 담론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담론'을 현실의 반영이 아닌, 현실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확정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본다. 그 근거는 첫째, 우리는 (객관적 현실을 직접 마주할 수 없으며) 담론의 재현(representation)을 경유할 때에만 현실을 체험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둘째, 그렇기에 담론은 (현실 자체로 체험되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인 기제, 혹은 기만적 술수나 획책으로 전유되지 않으며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른 자기-되기, 즉 주체화를 추동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두 번째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주체화가 자발적으로 수행되며, 또한 그 행위가 담론을 비로소 객관적인 현실로 공고히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공고한 현실은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 사회 질서를 재현하고 또 현실화하는 하위 담론들을 크게 정치(국가)/경제(자본)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우선 국가의 측면에서 주목할 담론은 문민정부시기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 그리고 외환위기 직후 시작된 '신지식인 운동'이다. 두 담론을 관류하는, 그리고 뒤이어 '인적 자원'이란 개념으로 강화될 새로운 시민상(像)은 "자기 책임의 구현자"로서의 국민, 혹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자기계발적 시민'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의 시민은 이전과 달리 '국민'으로 동원되는 개념이 아니다. 즉 국민(공적)/자기 자신(사적)의 구별은 폐기되고, "국민 만들기와 행복한 자기 되기"가 등치된다.

이 때 우리는 일견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그렇게 재현된 자유를 신중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능력을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 개발할 것이 강조된다는 점, 그리고 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하위 지표가 제시된다는 점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1)'에 제시된 "생애능력(Life Competence)" 개념으로 대표되는 이 경향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강조한 7차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부의 교육인적자원부로의 확대·개편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핵심적 담론들을 가로지르는 언표는 '유연화'이다. 이 언표는 기업과 개인 양자를 포괄하는데, 그 핵심은 노동주체가 더 이상 "예속된 생산 주체"가 아니라 "개성을 표현하고 일에의 몰입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자율적 존재라는 전제이다. 우선 기업의 측면에서는 소위 '인재 경영'의 담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모 기업 총수의 말로 요약되는 이 담론은 노동주체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출근부 찍지 마라. 집이든 어디에서든 생각만 있으면 된다."는 정언명령을 뒷받침하듯 업무재설계, 목표관리제(와 연동된 성과급제) 등이 새로운 경영 테크닉으로 대부분의 기업체에 도입되었다. 이제 노동주체는 기업이 정한 노동시간과 업무 처리 기준에 규율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기 삶을 경영하는 1인사업가"로 재규정된다.

저자는 이 담론에서의 '유연화'와 '자율' 역시 노동주체의 측면에서 그 이면을 밝히는데 첫째, 노동시간의 유연화이다. 목표를 자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은,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업무는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집이든 어디에서든"). 즉 이제 노동주체의 삶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가정/조합/정당 등)를 확보할 수 없다. 둘째, 고용의 유연화이다. 목표 달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동주체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실업을 마주해 누구도 탓할 수 없다("불량은 암이다."). 다시 말해 '노동의 유연화'는 '고용의 불안정'에 다름 아닌데, 그것을 다시 '자율과 자유의 가능성'으로 전도하는 게 이 담론의 결정적인 효과이다.

요약하자면 자유롭게, 하지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평생 계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 새롭게 대두된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상이다. 즉 우리는 '자유'의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것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기계발' 열풍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분석의 세세한 정오(正誤)를 따져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책에서 자유에 기반한 종속 기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영역으로 교육을 꼽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했던 당대의 주장들조차 '자율성'이란 전제에는 큰 이견이 없었음을 지적한다.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영역의 자율성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는데, 주지하듯 그 결과는 교육 영역의 유연화, 즉 국가와 자본의 담론이 중첩되며 형성된 전(全)사회적 질서에의 편입이었다. 여전히 자유의 가치가 소중하다면, 그렇지만 다른 담론이 필요하다면, 교육자와 교육학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다.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교육과 스승

아이들과 새내기 교사의 손을 맞잡는 서정애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양서초등학교 서정애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주는 서정애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정애
양서초등학교 수석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포항 양서초등학교 수석교사이며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객원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서정애입니다. 1, 2학년 초등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행복수업을 합니다. 해마다 학기 첫날이면 생활기록부를 넘기며 결손아동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아이들을 제일 먼저 가려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적인 열정으로, 후엔 뒤늦게 입문한 상담심리 지식을 동원하여 그들이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상담자격증을 취득하여 지속적으로 학교 상담을 진행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마른버짐 가득한 얼굴로 점심시간이면 생라면을 먹던 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전기밥솥을 학교에 갖다 두고 집에서 반찬을 준비해 와서 1년간 점심을 해 먹였습니다. 언니의 학대를 못 이겨 가출한 아이를 인근 읍을 뒤져 찾았지만 맡아줄 어른이 아무도 없어서 집으로 데려와 엄마이자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서적 지지가 필요했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하며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보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여러 상담이론을 섭렵하며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통합반, 위탁아동, 다문화, 더봄 학생을 지원하실 때 각별히 유념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선생님께서 지향하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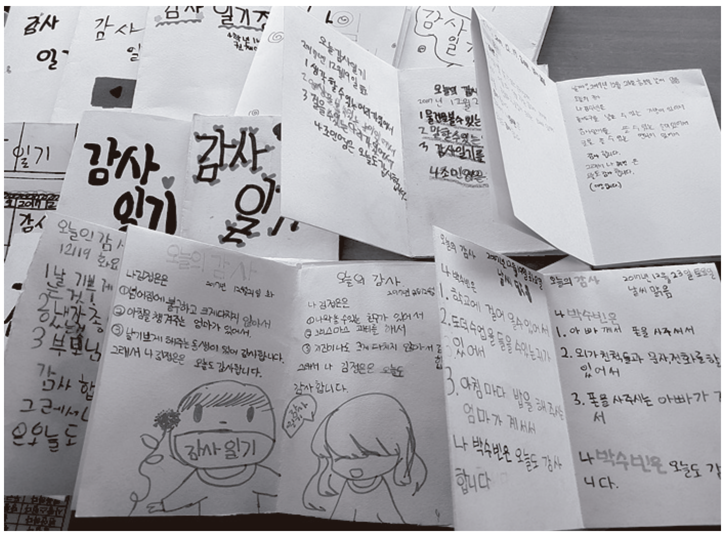
통합반, 위탁아동, 다문화, 더봄 학생은 관계 형성에 취약하므로 우선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개인을 존중하며 마음에 남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는 잊어도 선생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오래도록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최근 학교 폭력과 교내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평화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처벌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관계성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기존의 처벌적·권위적인 생활지도가 아닌 치유, 자비, 조정과 화해, 비폭력대화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상담을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부적응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치료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가족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부모들은 자녀들을 비난하고 문제의 원인을 자녀 탓으로 돌려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상담치료의 주체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상담에서 활용했던 기법은 '가족 사랑 부모교육'입니다. 이는 유능한 부모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윌리엄 글래서의 선택이론에 기반하여 부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행동하기를 지향합니다. 그 행동이 긍정적인지, 부정적 행동인지를 스스로 평가한 후에 자신만이 이행할 수 있는 문제해결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존중받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져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자신감이 생기며 또래관계도 원만해집니다.

▎새내기 교사 분들과 함께하는 수업 나눔 멘토링을 시작하신 이유와, 멘토링을 통한 기억에 남는 사례를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학교 현장에 첫발을 내딛은 새내기 교사들은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와 더불어 학생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동료교사들과의 협력 관계, 업무 처리의 생소함까지 많은 새로움에 부대낍니다. 새내기교사들이 좀 더 쉽게 교직생활에 적응하도록 매달 한 번씩 경력 5년 미만의 다섯 명의 새내기들과 만나 고충을 듣고 학급경영과 학생 관리, 업무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수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히 '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라는 제 견해에 따라 다양한 수업 철학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브루타 질문놀이, 사고력 신장을 위한 8가지 씽킹 맵, 아이들 마음의 광산에 있는 미덕의 보석을 깨우는 감성수업, 그림책을 활용한 행복수업 디자인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새내기 선생님들께 수업을 공개하여 수업 개선을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새내기들의 수업에 참관하면 컨설팅의 효과가 드러나는 수업 발전이 보여 기억에 남고 수석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선생님께서 꾸려나가고 계신 '수업 친구' 연구동아리의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학생참여중심 교수학습법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교사 스스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료 교사와 수업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수업을 성찰하면서 개선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수평적 관계 모임인 '수업 친구'를 꾸렸습니다. 이는 동료 교사 간에 성찰적 질문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고 내면적인 대화를 깊이 나누면서 스스로 수업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업뿐 아니라 학교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참여 수업은 처음에는 학습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지만, 차츰 학생이 주체가 됩니다. 학생참여형 수업방법으로 저는 주로 하브루타 질문놀이를 사용합니다. 그림책의 그림이나 텍스트로 '왜까바(평서문을 '왜~까'로 바꾸기)', '꼬질꼬질 질문놀이(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놀이)'를 통하여 수업 참여를 유도합니다. 놀이 형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흥미롭게 참여합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상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학급 경영의 최우선은 아이들과의 교감입니다. 교사에게 지적당할 때 외엔 이름을 불리지 않는 아이들이 많은 교실에선 교사 주도의 수업이나 생활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전체 앞에서 아이들 이름을 한 번씩 꼭 불러주세요. 제 경험으로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며 잘 짜인 수업 진행을 보면 한 편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듯합니다. 자신만의 브랜드 있는 수업을 만들어 '수업 예술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세계

유럽 리버럴아츠 대학의 부활과 대학 교양교육

손승남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교수

미국 대학의 전통으로 뿌리내려온 리버럴아츠 대학(LAC: Liberal Arts College)에 대한 관심과 출현이 유럽에서도 심상치 않게 감지되고 있다. 자유학예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교육이 유럽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유럽대학은 전공 위주의 전문가 양성에 치중함으로써 대학 교양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고등교육 이전의 교양교육을 전제로 대학의 전공교육이 이루어지는 유럽 특유의 지적 토양이 있기는 하지만 유럽에서 다시금 리버럴아츠 대학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리버럴아츠 대학은 원래 미국 대학유형 중의 하나이다. 유럽 교양교육의 전통을 미국 대학이 수용하여 미국적 정서와 토양에 맞게 하나의 제도로 정착시킨 것이 리버럴아츠 대학이다. 이 대학은 대개 1200명에서 2300명 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학생 대 교수 비율도 7 대 1 정도로 밀착 집중 학생 지도를 표방한다. 강좌의 수강생 수는 20명 이하로 소규모 수강 인원을 특징으로 한다. 자유학예교육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며, 레지던스 칼리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유럽 각국은 2000년대 초반 볼로냐 프로세스 이후 고등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리버럴아츠 대학을 새롭게 설립하거나 직업교육 위주의 고등교육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고심해 왔다. 개혁의 돌파구로서 대안으로 부상하게 된 이슈가 바로 리버럴아츠 대학이다. Godwin(2015)에 따르면 유럽 지역은 미국 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버럴아츠 프로그램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아시아 지역과 함께 리버럴아츠 대학이 급성장하고 있다.

유럽의 리버럴아츠 대학을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각 기관마다 생성 배경, 교육목적, 커리큘럼, 교수법, 전담기관이 상이하며 공립과 사립에 따라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Abrahám(2018)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유럽의 리버럴아츠 대학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리버럴아츠 칼리지 유형, 유니버시티 칼리지 유형, 중급 규모의 대학 내에 리버럴아츠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유형 등이 그것이다. 앞의 두 유형의 경우 세계의 많은 학생들을 유인하고자 공식 언어를 영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세 번째 유형의 대학은 그 언어가 대학마다 다르다.

첫 번째 유형은 미국의 대학 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미국에서 차용한 경우가 많다. 미국의 분교와 같은 형태로 설립된 경우 본국의 교육허가는 물론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유형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며, 대학이 추구하는 고유의 이념을 구현하기에도 적합하다. 학생 수도 적어서 세미나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 쉽고, 교수 1인당 지도 학생의 수도 많지 않아 개별지도의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 미국에서와 같이 이러한 튜터링(tutoring) 제도는 궁극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 학습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수와 학생이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학업은 물론 대학생활의 고민과 문제를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점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의 규모가 작고, 대학원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리버럴아츠 칼리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코스와 전공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현재 유럽에서 가장 널리 선호되고, 가장 널리 확산되어 있는 형태가 유니버시티 칼리지 유형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중심대학 내에 새롭게 리버럴아츠 대학을 새롭게 신설하여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구축해 나가는 유형이다. 1998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유럽 각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유형은 일반대학 안에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자리를 하고 있으며, 자체 교수요원과 학생기숙사를 구비하고 있다. 예산은 국가에서 나오지만 대개 본 대학을 통하여 배분된다. 리버럴아츠 대학의 위치는 본 대학의 캠퍼스 안에 있기도 하지만, 본 대학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체의 칼리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대학의 자원을 끌어 쓸 수 있고, 대학의 공간과 인프라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몇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핵심 코스(core courses)를 집중 이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학마다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을 구성하며, 소수 정예의 세미나 수업으로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기존의 대학구조를 유지하면서 리버럴아츠 교육 요소를 도입하여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수법상의 혁신을 꾀하려는 유형이다. 가령 이 유형에서는 학과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핵심코스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형태를 취한다.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과에서 제공되는 코스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교실의 수강생이 많아 소규모 학생으로 진행되는 집중 세미나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수강 인원의 축소나 분반의 확대와 같은 대책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내용상의 혁신보다도 교수법상의 변화를 우선시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예를 들어, 강의와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을 도입하여 수업 방법상의 혁신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영국과 독일의 몇몇 대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의 순수한 리버럴아츠 칼리지가 유럽의 토양에서 널리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과 같이 한국도 사정은 유럽과 비슷하다. 새로운 대학유형을 실험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에서 부각되는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전문교육과 직업교육이 갈수록 강조되어 왔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그 기초로서 일반교육, 기초교육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대두되었다. 하지만 교양교육의 튼실한 바탕 위에 전문교육을 부가했던 점은 대학의 설립 초기부터 확립된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볼로냐 프로세스로 인해 유럽 사회가 직업교육과 고도의 전문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에 대한 자성으로부터 리버럴아츠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생겨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본다. 독일의 근대 대학 개혁을 이끌었던 훔볼트도 개혁의 동인을 대학교육이 직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해가는 당시의 시대상에서 찾았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가 학문적 도야(Bildung)를 대학이념의 근간으로 삼은 것은 고등교육의 기저에 일반교육, 보편교육, 인격교육이 굳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리버럴아츠 대학이 추구하는 학문적 도야를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비판적 사고, 독립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인식론적 기반이 다져질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넘어서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요소는 학문적 도야의 한 국면일 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인지 역량은 도덕적 역량으로 연결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 리버럴아츠 교육은 도덕적 경각심을 잃지 않는 지식의 추구와 관련이 깊다. 리버럴아츠 대학에서 시민의식의 고양과 도덕적 헌신을 하나같이 교육의 목표와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현장 노트

다양한 공간, 색다른 배움

김재민
영어교육전공

작년 봄, 따사로운 햇살 사이로 연분홍빛 벚꽃과 싱그러운 나무들이 반겨주는 한 고등학교로 향했다. 내딛는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고 경쾌했던 이유는 정겨운 모교에서 4주 동안 교생실습을 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면 수업 진행에 다소 제약이 있었지만 여러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 녹화 영상 수업, 사흘간의 대면 수업, 학생들을 위한 교생들의 특별 영상 제작 등으로 필자의 교생실습 기간은 다채롭게 꾸려졌다.

첫 주에는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께 학교의 교과과정과 교과별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하여 배웠다. 그 후로는 교과담임 선생님들과 논의를 거쳐 개인 연구수업을 준비하였다. 또한, 당시 실습에 참여하였던 교생 일곱 명이 협업하여, 중복되는 한 교과를 제외한 여섯 교과의 통합 연구수업 영상을 제작하였다. 학생들이 없는 학교의 시간은 오히려 더욱 빠른 속도로 흘러갔다. 바쁘게 지나가는 나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보람찼고 학교 선생님들은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 교생들을 도와주셨다.

실습 마지막 3일 동안은 학생들과 실제 교실에서 만날 수 있었다. 가상공간에서만 소통하던 학생들을 직접 만나니 실습 첫날 느꼈던 설렘, 기대가 다시금 떠오르는 듯하였다. 외향적인 학생, 내성적인 학생, 그 중간 어딘가에 속하는 학생들로 교실은 가득 찼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기심과 열정으로 반짝이는 학생들의 눈망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필자가 던진 첫 질문은 바로 "학교 앞에서 외국인이 영어로 길을 물어보았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찬물을 끼얹은 것일까. 학생들도 개학 이후 서로를 처음 만난 상황이라 낯을 가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질문에 손을 드는 학생이 적을 것은 예상한 바였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다니.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다음 질문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도망갈 사람?"이었다.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그때 학생들에게 참 고마웠다. 진실한 용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느꼈던 감동은 여전히 생생하다.

"우리는 한국에서 줄곧 살아 온 사람들이에요. 영어를 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보여 준 용기가 정말 귀하게 느껴져요.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이 갑자기 영어로 말을 걸었을 때 대답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위축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듯이, 한국인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그들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배워야지요! 영어를 배우는 여러분이 멋진 사람들이랍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총 여섯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많은 학생들이 교생실과 복도 등으로 찾아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몇몇은 필자에게 약속이라도 하듯 영어 공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야기하며 각자의 포부를 밝히고는 하였다. 영어 공부에 관하여 희망을 품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준 학생도 있었다.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다.

교생실습이 끝나고도 학생들은 필자의 근황을 물으며 연락해 왔고, 영어와 관련된 질문 및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누어 주었다. 마지막 날, 학생들이 예쁘게 꾸며 준 교실에서 열린 깜짝 파티의 추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깊은 감동과 전율로 보다 깊이 아로새겨지는 중이다.

학생들과 필자의 배움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함께 추억을 되새기며 서로의 출발과 도전을 축복하고 응원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리라 믿는다.

학교현장 탐방

‘인문·예술융합중점과정’으로 인문·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금산여자고등학교

백혜진
금산여자고등학교 교사

인문·예술융합중점과정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경제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 관련 진로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성, 상상력, 감성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금산여자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산여자고등학교 국어 교사 백혜진입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에 위치한 금산여자고등학교는 1957년에 개교한 공립 고등학교로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참학력’ 신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따뜻하고 품격 있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즐거움과 자발성을 중요시하는 학생 중심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 교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산여자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금산여자고등학교는 ‘인성,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 육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으며, ‘꿈, 열정, 사랑으로 행복을 가꾸는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하여, 교사들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다양한 교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간혁신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문과 자연 융합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본교는 소프트웨어 캠프, 정책제안 캠프, 인문학 캠프 등 다양한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의 동아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리 개설부터 운영, 결과 발표회에 이르기까지 동아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방향을 최대한 존중하며, 더 나은 목표로 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인성과 지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금산여자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문·예술융합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교는 2018, 2019, 2020년 충남 연극 뮤지컬 지역 발표회 중심학교였습니다. 4년간의 연극 교과특성화학교 운영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학년도에는 거점학교로서 연극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이를 더 발전시켜 인문·예술 융합중점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연극부를 유지하는 한편, 오케스트라, 인문학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과특성화학교 운영을 위해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문학적 소양 향상을 위해 전교과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과 연계 독서 또는 심화 독서를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이 독서 전·중·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교과, 진로, 예술 융합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융합수업모형을 개발 및 운영하고 그 과정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범교과학습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셋째, 동아리 중심의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생 스스로 기획, 운영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학교 너머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예술융합중점과정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경제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예술 관련 진로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성, 상상력, 감성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문·예술 분야에 대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 인문·예술융합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필요한 역량인 창의·융합적 사고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해당 과정을 통해 깊이 있게 사고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고전 독서, 작가와의 만남, 시나리오 작문, 오케스트라 활동 등은 언뜻 보기에 불필요한 예체능 교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의 내면을 성찰하게 하고 상생과 협력의 가치, 창의적 사고력, 철학적 논리를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편의 연극이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조사하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등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아 성찰 능력, 사회학적 상상력 등을 키우게 됩니다. 이후 학생들은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 중,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부터 이강백의 〈파수꾼〉과 같은 풍자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접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인물에 대한 공감, 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언어적 능력은 물론,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까지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공감과 협력이라는 가치를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무대 설치, 연습 등 무수한 과정을 거쳐 한 편의 연극을 공연하고 난 뒤 학생들이 느끼는 성취감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연극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문·예술융합중점과정은 단일 교과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충족시켜줌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과 인성을 모두 키워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인문·예술융합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인문계 고등학교다보니 학생들의 인력 충원 문제가 어렵습니다. 연출, 조명 등의 인원이 필요한데 자발적 참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집중적으로 인문·예술융합중점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규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평가 기간 전후로 활동이 어렵습니다. 또한, 실기 위주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편성이 어려워 방학에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방학 활용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비교적 문화 소외가 일어나는 지역이므로 직접 연극을 관람할 기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에 나가거나, 유튜브를 활용하여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인문·예술융합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특성화학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미래역량이 신장되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본 과정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또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만큼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문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 도시 지역과의 교육 격차가 늘 걱정이 되고는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시기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 지금, 공교육에 종사할 선생님들께서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해 한 번만이라도 숙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

문화 탐방

색채들의 화려한 향연, 〈MUSEUM OF COLORS 展〉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컬러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전시 'MUSEUM OF COLORS 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63빌딩 최고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9개의 컬러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컬러는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럼 이제 색채들이 펼쳐 내는 화려한 향연, 'MUSEUM OF COLORS 展' 속으로 다함께 떠나볼까요?

〈MUSEUM OF COLORS 展〉

- 전시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60층 630아트 미술관
- 전시기간: 2020.12.24.(목)~2021.08.29.(일)
- 관람시간: 매일 오전 10시~ 오후 8시 30분 (연중무휴)
- 관람요금: 성인(14세 이상) 15,000원 어린이(13세 이하) 11,000원 경로(만65세 이상) 11,000원
- 관람문의: 1833-7001

색깔이 입혀져 있지 않은 세상은 우리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까. 아마 회색빛의 무미건조한 세상이 아닐까 싶다. 여러 가지 색채가 존재하기에 비로소 우리 세상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너무도 당연해서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은 색채들로 가득차 있다. 색채는 우리 삶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또한, 색채는 예술가들에게 있어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예술가들은 색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인상적인 작품을 창조해 낸다. 헤르만 헤세는 '수많은 색채들이 어울려서 하나의 명작을 만들어 낸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번 전시는 9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공간은 '블랙(Black)', '레드(Red)', '핑크(Pink)', '블루(Blue)', '선셋(Sunset)', '비비드(Vivid)', '레인보우(Rainbow)', '그린(Green)', '컬러 팔레트(Color Palette)'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각 명칭에 부합하는 색들로 꾸며져 있다.

그럼 이제 9개의 공간이 펼쳐 내는 색채들의 향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한껏 느껴 보자.

┃ 블랙 / 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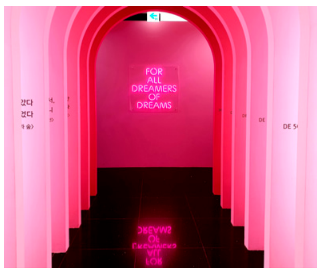
블랙은 모든 빛을 흡수하여 빛의 소실을 야기한다. 빛의 소실은 곧 공포로 이어져, 검은색은 줄곧 죽음, 슬픔,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블랙이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채도가 낮은 검은색은 그 이면에 모던함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의복이나 장신구는 물론 인테리어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때로는 강렬하고, 때로는 고요하며, 신비로운 블랙은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전시실 '블랙'은 블랙의 이러한 다채로운 의미를 담아낸 컬렉션 룸이다. 이름에 걸맞게 다소 어두운 배경과 소품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블랙이 주를 이루는 만큼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자아낸다. 세계적인 명소를 누비며 동화 같은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내는 사진작가인 크리스티나 마키바의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전시 포스터의 배경이 된 〈네버랜드를 찾아서〉라는 작품 또한 이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보랏빛 라벤더 숲을 달려가는 여성의 모습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을 연상시키는데, 주변을 가득 채운 블랙과 어우러져 그 색감이 한층 더 돋보인다.

레드는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초기의 유채색 중 하나이다. 용기, 사랑, 열정, 희생 등의 숭고함은 물론, 분노, 증오와 같은 극단적인 상태까지도 상징하는 레드는 그야말로 '강렬함'의 대명사이다. 전시실 '레드'는 블랙이 주는 모던하고 차분한 인상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 공간에도 크리스티나 마키바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붉은 양귀비 밭 한가운데에서 양귀비처럼 피어나는 여인의 모습을 담은 〈모든 양귀비가 잠들면 가장 아름다운 양귀비가 깨어난다〉라는 작품이 매우 인상적이다.

┃ 핑크 / 블루

핑크는 본래 오랜 기간 동안 장미색(Rosa)으로 불리다가 17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핑크'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는데, 그 명칭은 패랭이꽃(Pink)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핑크의 상징성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중세 시대에는 결혼과 연대를, 18세기 로코코 시대에는 관능을, 19세기에는 레드의 권위를 이어 받았다.



핑크의 변화와 다양성을 담아낸 공간이 바로 전시실 '핑크'이다. 마치 통로를 연상시키는 이 공간은 아치형 가벽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가벽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중첩되어 있다. 조금씩 다른 핑크로 채색되어 있어 핑크의 다채로움을 느껴볼 수 있다. 관람 방향 기준으로 왼편에는 문학 작품 글귀가, 오른편에는 각 핑크의 색상명이 새겨져 있다.

이제 전시실 '블루'로 이동해 보자. 블루는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색이다. 바다가 푸른빛을 띠는 이유는 빛이 바다에 닿을 때, 푸른빛만이 흡수되지 않고 산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푸른빛은 햇빛의 양, 수심, 파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공간에는 사진작가 린 더글라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는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 제도의 작은 섬인 스카이 아일랜드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푸른빛 풍광을 사진에 담아 블루의 경이로움을 표현해 냈다.

고요함, 에너지 등 블루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담아낸 사진들이 우리의 시선을 끈다. 킬트락 폭포 위에서 촬영했다는 '스카이폴II'라는 작품은 상당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수면으로부터 60m 위 절벽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초스피드로 셔터를 누르며 찰나의 순간들을 담아냈다. 수정처럼 영롱한 물방울이 인상적이다.

┃ 선셋 / 비비드

하늘의 색은 시시각각 변한다. 한낮의 하늘은 짧은 파장의 청색 광선이 산란하여 푸르게 빛나고, 해질녘의 하늘은 긴 파장의 빛들이 산란하여 주황, 옅은 핑크 등 다양한 색으로 물든다. 이처럼 해질녘의 하늘은 결코 한 가지 색으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실 '선셋'에는 해질녘 하늘의 색채를 본뜬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윤새롬 작가는 하늘의 색채를 아크릴이라는 물질로 구현해 냈다. 아크릴에 수없이 다양한 염료를 덧입혀, 한 걸음 한 걸음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다른 색으로 빛나는 작품을 탄생시켰다.

자리를 이동하여 전시실 '비비드'로 향해 보자. 들어서는 순간, 봄날과 같은 따뜻함과 발랄한 정취를 가득 느낄 수 있다. 이 공간에는 아트놈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아트놈 작가는 한국 민화에 독창적인 캐릭터 디자인을 접목하여, 예술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을 선보이는 팝 아티스트이다. '아트(Art)'와 '놈(者)'을 합해 만든 그의 이름에서부터 벌써 비비드한 발랄함과 개성이 느껴진다. 자신과 주변인을 모티프로 하여 만든 캐릭터는 그의 이름만큼이나 익살스럽고 유쾌하다.

┃ 레인보우 / 그린 / 컬러 팔레트

전시실 '레인보우'에서는 예너 토룬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사진작가인 예너 토룬은 공업지대와 개발지역을 두루 다니며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건물을 발견하고, 그 기하학적 특성을 포착하여 선과 면, 색채로 새로운 세계를 구성한다.

무지개 색 아이스크림을 연상하게 만드는 '레인보우 팝시클'은 '데이드림' 연작 중 하나이다. 데이드림 연작의 두드러진 특징은 맑고 파란 하늘이다. 하늘이 너무 맑은 나머지 현실 세계 같지 않은 느낌마저 들게 한다. 피사체에 해당하는 건물 또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모두 실재하는 공간들이다. 일례로 '레인보우 팝시클'은 터키 이스탄불 아브실라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이다.

그린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색채이다. 그래서 그린은 일반적으로 생명력이 가득한 봄, 젊음을 상징하며, 또 한편으로는 자연과 평화, 회복을 나타내기도 한다. 녹색으로 가득한 숲속에서 평온과 안정감을 느껴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실 '그린'은 이러한 특성을 집약하여 형상화한 정원으로, 관람객들에게 잠시간의 휴식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의 마지막 공간인 '컬러 팔레트'는 보색으로 꾸며진 공간이다. 보색은 색상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색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색인 만큼 둘의 조합이 어색하게 느껴질 것만 같지만 때로는 이 둘의 조합이 잘 어울릴 때도 있다. 이웃한 색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내치기보다는 종국에는 하나의 고리를 이루는 보색을 떠올리며 상대를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9가지 색이 보여주는 9가지 매력. 이번 전시를 관람하고 나니 눈앞에 펼쳐지는 색채들이 더욱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진다. 각자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색들은 따로, 또 같이 한데 어우러져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색으로 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가. 여러 색들이 각자의 개성을 지니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 본다.

안수진 기자 dkstnwls61@korea.ac.kr